

미국 성인 63%,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한국교회에 참고가 될만한 미국 자료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복음주의 단체 리고니어 미니스트리(Ligonier Ministries)가 목회 전문 조사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를 통해 실시한 ‘리고니어 신학 현황 연구 2025’는 미국 성인의 신학적 신념과 인식을 분석한 조사 보고서이다.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절반(48%)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했으며, 3명 중 2명 가까이(63%)는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정기적인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해 신앙의 개인화 현상을 드러냈다. 또한 ‘성경에서 동성애적 행동을 비난하는 내용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는 항목에 41%가 동의해 성경적 윤리 기준이 개인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넘버즈 310호>는 미국인의 신(神), 죄, 구원, 성경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신앙의 ‘상대화’와 ‘세속화’를 진단하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지키고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신에 대한 인식]

미국 성인 3명 중 2명 이상, '신의 사랑과 완전성' 확신!

- 미국 성인(일반 국민)들의 신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10명 중 8명 이상(83%)이 '신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응답했다. 또, 3명 중 2명가량은 '신은 변하지 않고'(68%), '완벽한 존재며 실수하지 않는다'(66%)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상당수의 미국인이 신의 절대적 사랑과 완전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신에 대한 인식 1.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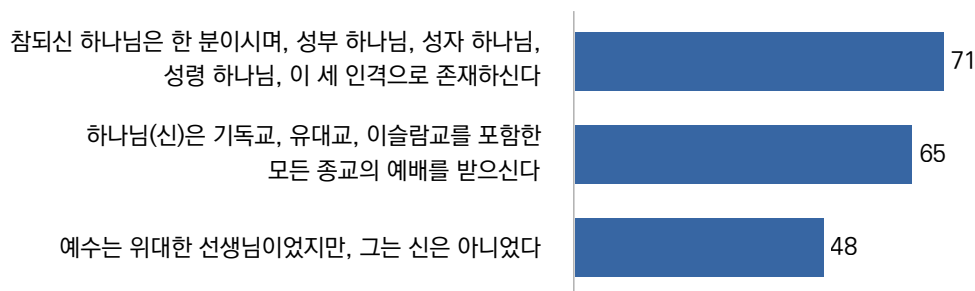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미국인 절반,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지만 신은 아니다'!

- 미국인의 71%는 '성부·성자·성령,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3명 중 2명(65%)은 '신이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답했고, 절반가량(48%)은 '예수는 위대한 선생이었지만, 그는 신은 아니었다'에 동의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드러났다.

[그림] 신에 대한 인식 2.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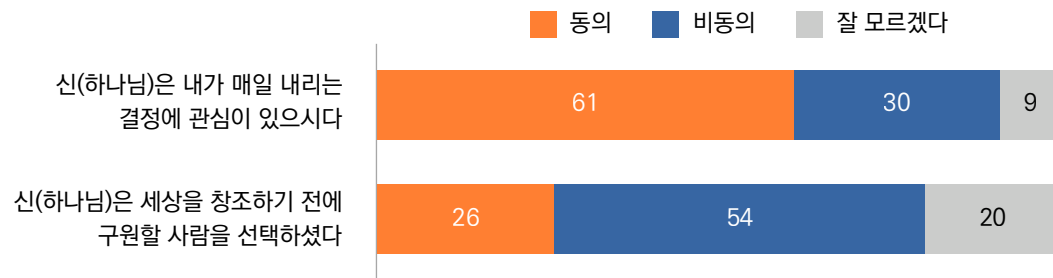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미국인 10명 중 6명, ‘신은 내 삶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신다’!

- 미국 성인 10명 중 6명(61%)은 ‘내 삶의 결정에 관심을 가지신다’고 응답해, 하나님을 멀리 계신 초월적 존재가 아닌 내 삶의 동반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4명 중 1명(26%)은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구원할 사람을 선택하셨다’고 믿어, 구원과 선택에 대한 예절론적 이해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신에 대한 인식* 3.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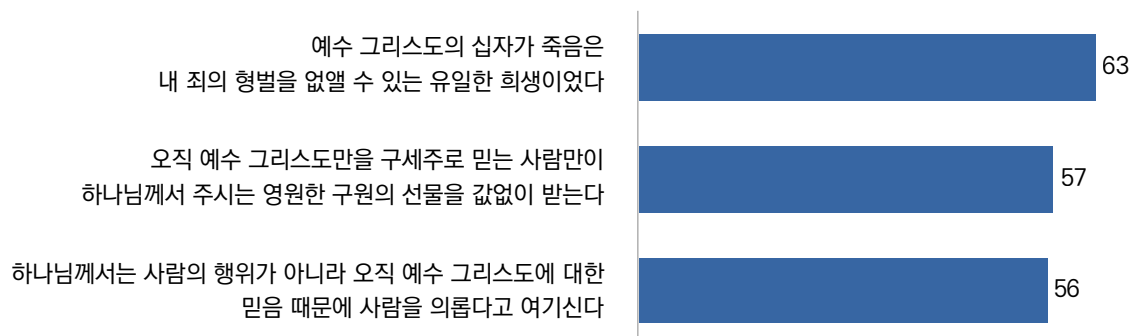
*4점 척도

02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인식] 미국인 절반 이상, ‘행위 아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사역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을 살펴본다. 미국 성인 3명 중 2명 가까이(63%)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죄의 형벌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희생’이라고 믿었으며, 절반 이상(57%)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영원한 구원을 값없이 선물 받는다’고 응답했다.
- 또한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신다’에도 56%가 동의해, 미국인 절반 이상이 ‘십자가 희생’,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라는 복음의 핵심 교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일반인을 대상으로 조사했음에도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이 예수와 구원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어 기독교 영성/가치관이 광범위하게 전국민 가운데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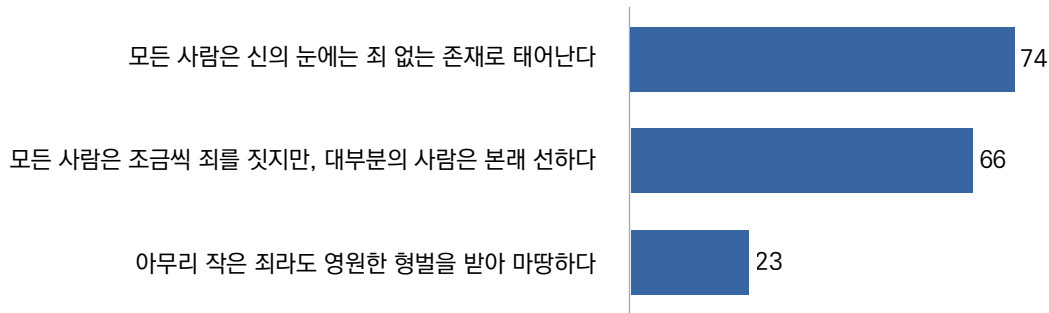
03

[죄와 심판에 대한 인식]

미국인 4명 중 3명(74%), ‘사람은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

- 인간 본성과 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미국 성인 4명 중 3명(74%)은 ‘모든 사람은 신의 눈에 죄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고 응답했고, 3명 중 2명(66%)은 ‘모든 사람은 조금씩 죄를 짓지만 본래 선하다’고 답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는 ‘성선설’의 인식이 뚜렷했다.
- 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항목에는 4명 중 1명(23%)만 동의했다.

[그림] 인간의 본성과 죄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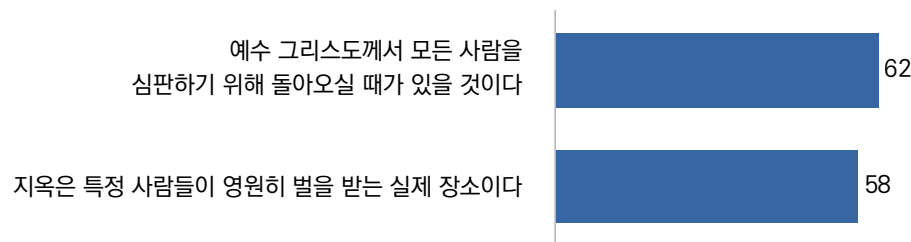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미국인 62%,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 미국 성인의 62%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절반 이상(58%)은 ‘지옥은 특정 사람들이 영원히 벌을 받는 실제 장소’라고 응답해, 미국 내 심판과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심판에 대한 신념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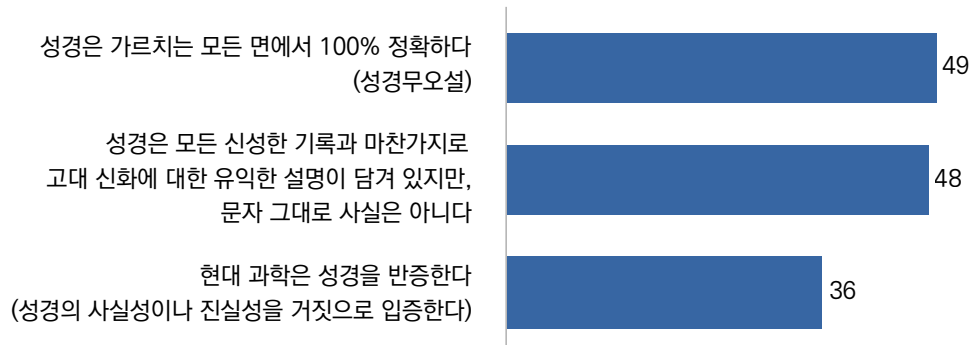
04

[성경에 대한 인식]

‘성경은 100% 정확’ vs ‘문자 그대로 사실 아냐’, 반반으로 갈려

- 미국인의 절반(49%)은 ‘성경은 가르치는 모든 면에서 100% 정확하다’(성경무오설)고 믿는 반면, 거의 같은 비율(48%)로 ‘성경은 고대 신화에 대한 유익한 설명이 담긴 기록이지만, 문자 그대로 사실은 아니다’라고 응답해 의견이 갈렸다.
- 또한 ‘현대 과학은 성경을 반증한다’는 진술에도 3명 중 1명 이상(36%)이 동의해, 성경의 권위와 사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인식이 적지 않게 나타났다.

[그림] 성경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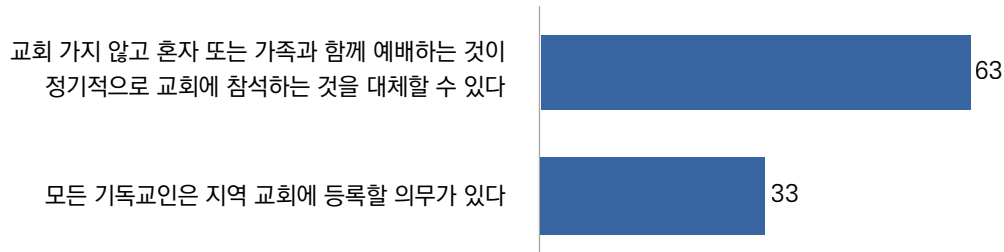
05

[교회 인식]

미국성인63%, '혼자서예배하는것이교회참석을대체할수있다!'

- 미국 성인 3명 중 2명 가까이(63%)는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해, 신앙의 개인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 반면, '모든 기독교인은 지역 교회에 등록할 의무가 있다'는 항목에는 3명 중 1명(33%)만 동의해,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이 낮았다.

[그림] 교회 공동체와 예배에 대한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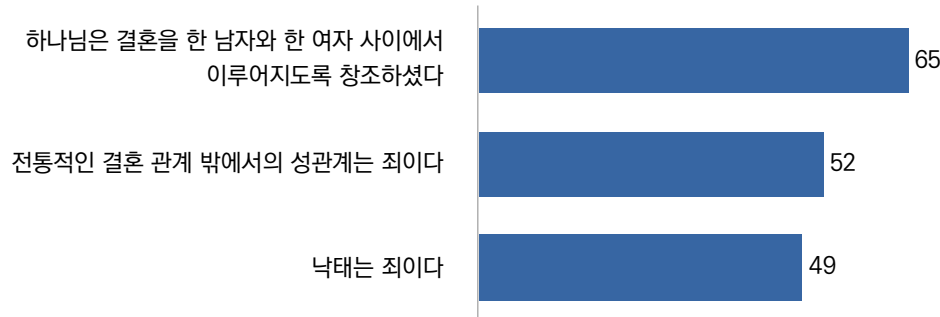
06

[사회윤리 인식]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도록 창조했다’ 65%!

- 결혼·생명 등 사회윤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미국 성인의 65%는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도록 창조하셨다’고 응답해, 전통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인식이 우세했다.
- 반면, ‘전통적인 결혼관계 밖에서의 성관계는 죄이다’(52%), ‘낙태는 죄이다’(49%)라는 항목에는 절반 안팎만 동의해, 성윤리와 생명윤리에 대한 도덕적 인식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태를 보였다.

[그림] 사회윤리(결혼과 생명)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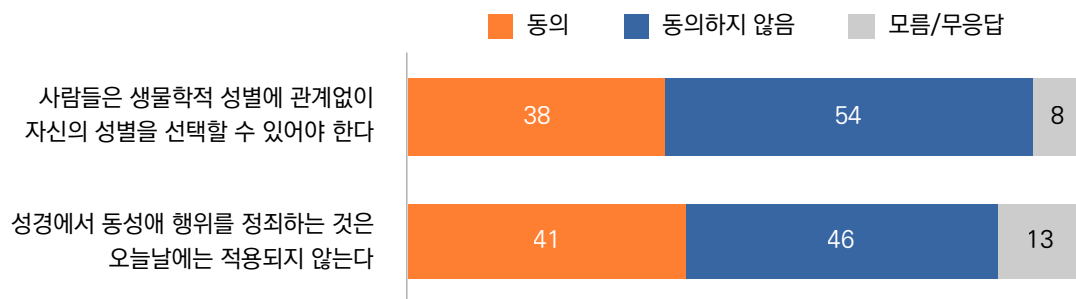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젠더 인식, ‘동성애 정죄는 시대 착오’ 41%!

- 이번에는 젠더 관련 인식을 살펴본다. 미국 성인 10명 중 4명가량(38%)은 ‘사람은 생물학적 성별에 관계없이 자신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해, 젠더 자율성을 긍정하는 인식을 보였다.
- 또, 41%는 ‘성경에서 동성애 행위를 정죄하는 것은 오늘날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해, 성윤리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점차 상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전체적으로 볼 때, 전통적 성윤리보다 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사회윤리(성과 젠더) 인식 (매우+약간 동의한다 비율*, 미국 성인, %)



※출처 : 라이프웨이 리서치,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Ligonier State of Theology 2025), 2025.09. (미국 성인 3,001명, 온라인 조사, 2025.01.06. ~01.15.)

*4점 척도

이번호 요약

1. 미국인 62%,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

- 미국 성인(일반 국민)의 62%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미국 성인 63%, ‘혼자서 예배하는 것이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

- ‘교회 가지 않고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 참석을 대체할 수 있다’에 미국인의 63%가 동의해, 신앙의 개인화 경향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3.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한 여자가 하도록 창조했다’ 65%!

- 결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미국 성인의 65%는 ‘하나님은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 지도록 창조하셨다’고 응답해, 전통적 결혼관을 지지하는 인식이 우세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서적] 순전한 기독교 (C.S.루이스/장경철, 이종태 역, 홍성사)

관련 성경 구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사도행전17:31)

목회 적용점

이번 ‘리고니어 신학 현황 2025’ 결과는 미국인의 기독교 인식이 세속적 가치 속에 복음적 전통성이 뒤섞인 혼합 신앙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63%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교회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비기독교인을 포함한 일반인의 응답이지만 기독교 문화 중심 국가로서 그 안에는 교회에 소속된 신자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권 교회를 벗어난 영성의 개인화 현상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최근 우리 연구소 조사에서도 한국 기독교인의 ‘영성의 개인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된 바 있다. 이런 현상으로 성도들의 향후 교회에 대한 충성도와 소속감이 약화되면서, 교회 출석을 또한 점차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목회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신앙의 개인화를 극복하는 ‘신앙공동체’를 회복해야 한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 서비스 제공 공간이 아닌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신앙공동체’다. 따라서 소그룹 사역 등 성도들이 개인적 신앙을 넘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돌보는 공동체적 신앙의 가치를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음의 기초를 재무장하는 ‘신학 훈련 공동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수의 신성과 성경의 권위가 세속적 가치관에 의해 약화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최우선 과제는 성도들의 영성 강화이다. 교회는 복음의 기초를 명확히 가르치고, 이를 변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공동체로 기능해야 한다. 성도 개개인을 대상으로 교리 교육과 신앙 상담을 강화함으로써, 흔들리지 않는 신앙 정체성을 세워야 할 것이다.